

광양시, “이번 주말은 백운산 억불봉 자락으로 떠나요”

광양 대봉감 축제... 감 깎기·감 먹기·보물찾기에 송아지 경품까지
농부네텃밭도서관, 어치계곡 탐방로, 불암산성 등 가을 정취 만끽

광양시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11월 주말, 수려한 억불봉과 맑은 수어호 풍광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백운산 자락 광양 진상면 여행을 추천했다.

우뚝 솟은 억불봉이 감싸고 있는 진상면은 백운산이 거느린 어치계곡을 비롯해 불암산성, 농부네텃밭도서관 등이 자리한 곳으로, 가을의 정취와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진상면사무소 앞 백학문화복지센터 광장 일원에서 제3회 광양 대봉감 축제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감 즉석 경매, 감 깎기·감 먹기 대회, 대봉감 가요제, 즉석 노래자랑, 퀴즈대회,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광양 9미(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선한 광양 대봉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송아지 경품 이벤트가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인근의 농부네텃밭도서관은 아기가자 한 자연 속 도서관으로, 전통놀이·짚다인·물배 타기·토끼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종려나무와 파초가 어우러진 정원에는 ‘원두막재방’, 광양 사람들의 글로 채우는 광양글밭도서관 등 독특한 문화공간이 마련돼 있다.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는 진상면 내회교(橋)에서부터 구시폭포까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1.25km 탐방로로 내밀한 자연을 피부 깊숙이 호흡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탐방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만큼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쉬지 않고 흐르는 물소리와 기암괴석도 감출 수 없는 비경이다.

생태탐방로의 숨겨진 매력은 탐방로를 찾아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된다. 갖 모양의 억불봉이 맑은 수어대에 반영을 이루



고 붉게 익어가는 감나무 풍경은 가을 정취의 절정을 보여준다.

수어담 옆 불암산성은 600년 무렵 축조된 백제시대 산성으로 탁 트인 조망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사색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 4대 산성의 하나인 불암산성(도 지정기념물 제177호)은 불암산 남서쪽 해발 231.5m의 봉우리를 긴 사다리꼴로 테를 두르듯 둘러싸는 협축식 석성이다.

문지(門地), 건물터, 우물 등이 발굴됐으며 기와류(격자문, 무문, 승문, 선문), 토

기, 어망주, 석환 등이 출토됐다.

산성 한편에는 아늑한 벤치가 놓여 있어 억불봉과 수어호 풍광을 눈에 담으며 호젓하게 산방·물멍을 즐길 수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백운산과 섬진강을 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광양은 가을의 정취와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여행지”라며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광양 대봉감 축제와 텃밭도서관, 계곡, 산성 등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단체 방문객 발길 끊이지 않아 757개 단체 방문, 치유·체험·관광 명소로 인기몰이

우리나라 대표 치유 명소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기준 기업, 학교, 기관·사회단체 등 757개 단체에서 총 18,137명이 다녀갔다.

특히 기업의 복지 워크숍과 학생 현장학습, 여성 단체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단체 방문객 급증으로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방문객 확보, 인센티브 제공, 기관·단체 맞춤형 일정 및 프로그램 제공, 단체 예약과 제휴 숙박 및 장소 등 편의 제공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협약 기관은 이용료 30%, 10명 이상 단체 방문객은 20%를 할인한다.

단체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테라피는 스킨, 해조류 머드 랩핑, 해조류 스킨, 저주파, 향기 순으로 나타났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테라피를 한 후 센터가 위치한 신지 명사심리 해변에서 맨발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하는 시간도 가져 치유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연계한 치유 관광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더 많은 단체 방문객이 치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형빈 부군수를 비롯해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과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해 ▲체납액 현황 ▲체납 원인 분석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대책 등을 공유하고,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보성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맞춤형 징수·고액 체납자 강력 제재로 재정건전성 강화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5억 원에 이르며, 이번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특히 체납자

의 유형을 단순 체납자·생계형 체납자·고액·고질 체납자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보성/김은주 기자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서형빈 부군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전 부서가 협력해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은주 기자**

담양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성료

어린이·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됐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3개교와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총 18회 진행됐다.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자원순환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라이프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교육과 함께 체험형 활동을 병행해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직접 느끼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배우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생태환경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보전의 주체로 성장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성황리 마무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전했다.

먼저, ‘일어회화’ 강좌는 4월 20일 개강해 외국어 실력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어서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과정’ 및 ‘반려식물 만들기’ 강좌가 5월 31일까지 운영되어 군민들의 생활 속 힐링 기회와 자기 계발 수요를 만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인인지미술 지도사 과정’은 총 18명의 성인문해교사가 참여해 한국노인통합개발원으로부터 노인인지미술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은 2026년 각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시니어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

이다. 하반기 9월부터 진행된 ‘폴로리스트 초급’ 및 ‘아로마 테라피’ 강좌는 감성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수업으로서 여성과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10월 28일까지 총 8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우수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렇게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의 5개 강좌는 총 75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학습자 김OO씨는 “이번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통해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생활 속으로 찾아오는 교육과정이 아주 유용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군, 외국인근로자 숙소 ‘고흥바람채’ 본격 운영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 조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면 사도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8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5 하계대학 CCYP(대학생 동아리) 연합 어촌봉사캠프 in 고흥’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됐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영남면 사도마을에서는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고흥군 취도·금사항 앵커조직 등은 사업의 필수적인 시공 재능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조성된 숙소 이름은 ‘고흥바람채’로, 리모델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제안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의 근간인 어업을 응원하고, 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공동체적으로 화합하길 바란다’는 사업참여자들의 공통

된 바람을 담았다.

‘고흥바람채’는 냉난방, 수도, 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새롭게 교체했으며, 무선 인터넷도 신선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가이드북도 비치돼 주거 관리와 마을 생활 안내를 제공한다. 기존 다른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달리 온전한 이주민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만큼 입주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바람채는 단순한 숙소 조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민간이 자원을 투자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계절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의 좋은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행복하고 싶은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나보다 원대 사람을 만나고 기억에 남길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및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만드니까 기뻐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진 사람,**
미래의 현재가 **가진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고**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행복**
그 자체만으로도 **가**
좋은 거라면 **가**
언제나 **우연**
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